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대대학교 총장

지금 우리의 대학들이 전례 없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역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안팎에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대학의 위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급감하는 입학 적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9년 동안 현 입학정원의 33%에 해당하는 16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을 5단계로 분류 평가하고 하위 2단계는 퇴출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점점게 표현해서 조정이지, 실제로는 대학의 수와 양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요즘 대학총장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사실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대학의 구조조정도 그렇지만, 대학에 대

그래도 대학이 희망이다

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학구조조정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여러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 문제는 유독 이 구조조정이 대학들에 대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부각되면서 대학이 폄하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학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반값 등록금'이라는 다소 정치적 색채를 띤 슬로건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듈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대학에, 아니 등록금에 관심을 가지면서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대학들을 압박하며 극히 일부 대학의 부도덕과 부실이 필요 이상으로 부추겨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대학의 생사가 걸린 '구조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취업률, 학생 충원을 같은 정량 지표에만 치중할 때 이 정신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기중심적 생각이 짙어 몰라도,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한국교육의 예찬이 아니더라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그 열정과 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했던 강의실과 복도에서, 그리고 주린 배를 안고 앉은 교정 앞 잔디밭과 선술집에서의 그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학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가진 것도 없이, 도전정신 하나로 동체, 짧은 영어의 두려움 속에서도 중동, 동남아 등으로 떠났던 그 시절 젊은이들의 치열했던 정신을 오늘 되새기고 싶다. 쉽지는 않았지만, 입학인구의 급감이나 취직의 어려움 같은 문제는 결국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대학정신의 훼손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늘 더 중요하다.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 왔다. 중세 초기 유럽의 대학들은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학생 간의 길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시대의 문제를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했고, 그 후 학문을 배우는 것이란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으로 대학은 변모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와 새삼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와 같은 원론적 물음을 되풀이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난해한 고차원의 미분 방정식과 같이, 즉 국립과 사립, 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등 여러 요인이 심하게 얽혀 있는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을 되짚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시 대학이 세상에서 부와 출세를 얻기 위한 인적·지적 인프라만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아닌지. 더 이상 학문의 공간은 특별하지 않고, 그런 공간이 세상을 풍요하게 만든다는 생각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인성과 지성 그리고 인문학과 같은 말들이 그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꼭 되돌아보아야 한다.

대학도, 이에 맞춰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대국화 사이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이고 국가적인 물음에도 보다 치열하게 답해야 한다. 대학이 결국 우리의 희망이니까.

社說

호남 비하 ‘악성 댓글’ 추방 적극 호응해야

지역개발과 인재양성 정책을 공론화해 중앙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호남미래포럼'이 실천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다. 지역 출신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 등 303명으로 발족된 호남미래포럼(공동대표 김승규 전 국정원장·함갑수 전 장관 등)이 호남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첫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선불 봉사 1만 의병', 삼성 대졸자 공채 모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교육 혁신 등을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부터 제기했다. 그 첫 실천 방안으로 5·18 정신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생과 은퇴봉사자 등을 주축으로 '선불 봉사 1만 의병' 운동을 벌여 호남의

'의기'(義氣)를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된 인원 배정 때문에 백지화된 삼성그룹의 대졸자 공채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균형 잡힌 채용으로 지역 인재 배출의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다. 검증된 원어민교사를 활용해 인재를 육성하고, 포럼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포럼이 호남을 격중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잘못 투영된 호남의 이미지를 바로 잡고, 인재 등용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밝힌 점 또한 반길 만하다.

포럼의 건전한 제안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역 출신 인사들이 팔을 걷고 나선 마당에 주민들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호남업 대혁신과 은퇴봉사자 등을 주축으로 '선불 봉사 1만 의병' 운동을 벌여 호남의

미세먼지 예보 기능도, 대책도 없더니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데다 예보 기능마저 취약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30㎍/m, 전남은 101㎍/m로 사흘째 '나쁨'(121~200㎍/m)과 '약간 나쁨'(81~120㎍/m) 단계를 보였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남과 카드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잔뜩 포함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습격하면서 이제 각종 질환 등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는 달리 인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축적돼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다. 기관지와 안과 질환,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에 설치된 7곳, 전남지역 16곳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단순 데이터 수집만 할 뿐 예보 기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미

세먼지 농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여력이 없더니 당국의 무대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찾기 어렵다.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먼저 측정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을 핑계로 전문 인력조차 없이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원인 제공자인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중국 측에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마스크에 건강을 맡긴 채 미세먼지와 싸우도록 놔둘 셈인가.

無 等 鼓

반달 낚시 참으로 즐거웠다. 소치 올림픽이 있었기에. 팜과 눈물이 만들어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그 드라마에 웃고 울었다. 17일의 열전이 끝난 지금 많은 선수들의 얼굴이 뇌리(腦裏)에 스친다.

이상화(25). 예전엔 그의 이름을 들으면 '베아트리스'라고 불리고 있다. 기 관자와 안과 질환,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에 설치된 7곳, 전남지역 16곳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단순 데이터 수집만 할 뿐 예보 기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미세

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동메달을 목에 걸며 역울할 법 한데도 시상식에서 활짝 웃었다. 그의 의연함이란!

또 있다.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웠던 피겨의 여왕(女王) 김연아. 주최국 뒷배로 '베아트리스'에 모두들 공분(公憤)했지만 스페인 살의 이 어린 소녀는 너무도 의젓했다. 다들 '소치 올림픽'이 '수치(羞恥) 올림픽'이 됐다며 흥분하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그녀는 "다 건질 연애에 빛나는 빙속(氷速) 여제(女帝)가 있기 때문이다."

소치의 얼굴들

고도 했다. 이 정도면 거의 도인(道人)의 경지 아닌가.

이런 김연아에게도 잠정과 함께 단점이 있다고 한다. 잠정은 멘탈(mental, 강한 정신력)이오 단점은 출신 국가라는 것인데... 러시아에 금메달을 도둑맞은 국력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다.

어찌 됐든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연아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래서 은 백설공주, 무덤가

리며 그리울 외쳐댔던 것 아닌가. /이희재 논설교

의료칼럼



강채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2월 말에 들어서면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넘는 등 초봄 날씨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엔 추위 탓에 응크렸지만 이전 서서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길 때가 됐다. 건강한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 건강을 체크해 보고 건강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다.

자신살일 금연계획, 연말이면 어김없이 세우게 되는 금연 바람이 이번에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유발된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하루 빨리 금연 선언을 하자. 곧이어 금연중상이 나타날 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난다.

날씨 풀리는 3월엔 운동을!

이런 금연중상 완화방법은 다양하다. 알을 돌, 녹차, 과일주스를 마시거나 껌을 씹는다. 또 반산욕 등으로 긴장을 풀고 잠깐 잠을 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주 정도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방 금연첩은 1주일에 2회 정도 시술하게 되는데 3~4주간의 시술을 거쳐 금연을 돕는다. 대개 귀에만 침을 놓는 이침 요법이다. 한방에서는 귀를 인체의 축소판으로 여기고 귀에 있는 경혈 중 임, 코, 목, 기관지, 폐 등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침을 놓는다.

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간, 그렇지 않으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피로함을 호소하는 간이 술로 인해 병들고 있다. 한번 술을 마시면, 이삼일 정도는 쉬어주는 센스를 갖자.

한방에서는 술을 '백약지장(百藥之長), 백독자원(百毒之源)'이라고 한다. 조금 마시면 따뜻한 성질이 약력을 위로 보내고, 경락을 잘 소통하게 해 모든 약이 통이 되지만, 과음하게 되면 모든 독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 얼굴에는 위와 대장의 경락이 주로 흐른다.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열을 만들어내 위 경락을 타고 열이 얼굴로 올라온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소량의 술을 마셔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게 낫다. 한방에서 체질개선을 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좋아진 체질로 술을 먹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꼭 식사를 해서 뇌와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알코올의 양이 줄어들게 해야한다. 특히 단백질이 높은 생선, 고기, 두부 등을 곁들여 식사하면 술의 흡수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 술을 꽤 즐기는 편이라면 간 해독을 해볼 것을 권한다. 간은 우리 몸 안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으로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담관을 막고 있는 담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의 담관은 담석으로 막혀있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몸 안의 담석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간 해독으로 간을 달랠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다.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어들는다. 또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비 에너지가 많아 몸 안에 저장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단시간의 격렬한 운동보다는 2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이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이라고 권한다. 단지 먹는 양을 줄여 몸무게를 줄이려고 한다면 근육 량이 감소해 체력만 떨어진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기 힘들다면 전문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괜찮다. 한방에서 권하는 해독다이어트는 우선 간에 쌓여있는 담석 등 노폐물과 장내에 남아있는 숙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체내의 독소만 제거해도 비만개선은 물론 우리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금연, 금주, 갈팡 세 가지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을 고쳐나간다면 갑오년 한해 동안의 건강은 물론이고 평생 건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는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능력의 증대가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켰다면, 전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이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게 된 반면에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옛날엔 만들어만 보면 팔렸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뚫기가 힘들다는 어느 연로한 기업인의 하소연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별도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나 거대한

판로(販路)가 답이다

자급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과 물량공세가 가능한 대기업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덜하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판로는 그야말로 맨손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 위주의 유통망에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영세 중소기업에게 부담스러운 입점수수료와 높은 진입문턱은 대형 유통망(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입점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영업력 부족으로 수많은 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난'이다.

지난 1월 중소기업협회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에 따른 판매난(80.7%)'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 효과를 가장 높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에게 홍보판매 인접비용을 지원해 주고 홍보판매를 통해 자사 제품을 지원하였고 디케이산업의 제습기, 헬스 바F&B의 과일칩, 투바니의 예코백 등 지역 내 많은 상품이 전국에 소개되고 매진사례를 이어갔다.

'홍쇼핑 판매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신규 유통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홍보판매 인접비용 반액 지원에서 전액(22백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입점비용이 부담이 돼 홈쇼핑 진출기회를 포기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도 판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광범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공급과잉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 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12	체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